

4월 중순 브뤼셀에서 회동한 14개국의 참모총장들은 걸프전에서의 경험을 논의하고, 미래의 전략구상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들은 미래의 전력구조 형태가 5월 브뤼셀 국방기획위원회에 참석하는 국방장관들에게 제공될 참고자료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나토의 계획 절차는 어쩔수 없이 상황하기는 하지만, 매우 효과적이기도 하다.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이 되며, 이에 따라 각국은 시행조치를 취할수 있게 된다.

전력구조 계획의 기초가 되는 것은 주요 나토사령관(MNC)의 제안으로서, 이들은 자신들이 구상중인 임무에 비추어 소요를 제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임무들은 전체 전략에 의해 결정될 것이므로, 아직 최종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고, 계획 확정시점에서 상당부분 조정될수 있다.

이 계획은 5월 국방장관들이 검토, 수정할 것이다. 이어 6월초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협의회 외무장관회의에 상정되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인 최종 승인은 10월 개최 예정인 나토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참모총장들은 지난해 자신들이 채택하였던 원칙에 입각하여 전력구조의 윤곽을 잡았다. 동·서 진영간의 긴장 완화에 따라 융통성과 다국적성 증대, 준비태세 축소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내 연합군 전력은 훨씬 분산되고 감소되겠지만, 최대한의 국가가 참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전력을 3종류로 분류하였다. 이는 주요방위부대, 대응부대, 증원부대이다.

주요방위부대는 현재의 지역부대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지휘계통을 구성할 북대서양최고사령부(SHAP)하의 각 본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다음중 하나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현재 북대서양최고사령부는 중부(AFCENT), 북부(AFNORTH), 남부유럽연합군(AFSOUTH)의 지역사령부를 거쳐 집단군이나 동급 부대에 통하고 있다. 이 수준은 전부 국제적인 지휘범주지만, 차하위 수준인 군단은 개별 국가 범주이다.

현재 제안에는 다수의 다국적 군단이 구성되어 있고, 각 군단은 2, 3개 국가의 3개 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주도국가」로 알려진 한 국가가 상임 지휘권을 가지며, 대부분의 군단에 지원 요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도국가」 개념이나 군단의 지휘계통에 대해 분명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다국적성의 증대는 해군에서도 나타난다. 현재의 2개의 상비해군인 대서양 상비해군(Stanavforlant) 및 해협 상비해군(Stanavforchan)은 지중해구역을 위한 1개 해군을 추가하여 3개로 증가될 것이다.

나토의 전체 영역에서 지중해지역이 가장 불안정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남부 측면의 상비연합준비군은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보통 일년중 2번의 단기간 훈련만을 행하던 나토의 지중해대기 해군이 걸프전 기간이었던 1월부터 3월까지의 완전히 운용되었다.

一 笑 一 少 一 怒 一 老

남편의 경제적 자존심

아 내 : 당신 지난 금요일에 이상한 편지 받으셨죠?

남 편 : (끄덕 끄덕)

아 내 : 그 편지를 읽으면서 진땀을 흘리던데 도대체 무슨 편지였죠?

남 편 : 다음에 얘기하지...

아 내 : 어떤 여자인지 고백해요!

남 편 : 그건 당신 단골 쇼핑점에서 온 편지인데, 당신 빚이 3백만원이라는 거였소.

2가지 형태의 대응부대도 구상되고 있다.

즉시대응군은 잠재적인 침략자에 대해 연합군의 결의와 단결을 과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가능한 다수의 국가들로 구성되고, 고도의 준비태세를 갖춘 전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임무는 유럽연합기동군사령부(AMF)에서 지금까지 담당해 왔다.

AMF의 지상전력은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여단규모급에 해당되는 산하 부대는 평시 각국에서 대기하고 있으나, 단기간내 소집될 수 있게 되어 있다. 걸프전에서는 터키에 배치되어 효율성을 입증한 항공전력도 신속한 개입이 가능하다.

즉시대응군은 AMF를 기본개념으로 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즉시대응군은 다수의 연합국이 참가하여 소규모이면서도 기동성이 뛰어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북부지역 육군에서는 한동안 공수사단 계획이 고려되었었다. 이 안은 벨기에, 영국, 독일, 네덜란드등 4개국이 신속한 전술적 이동이 가능하도록 대규모의 헬기를 보유하는 부대를 편성하는 것이다. 이 안은 비록 국가적으로 상당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기는 하지만 추진되고 있다.

두번째 단계는 신속대응군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신속대응군에 관한 내용은 다국적의 군단규모로서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는 대규모의 헬기를 보유한 낙하산 및 공수부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중무장 지원부대는 감축될 것이다. 프랑스의 신속대응군이 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증원부대는 2개의 주요 층으로 구성될 것이다.

첫째는 각 회원국에 주둔하고 있는 현역군인들에 의한 일반적인 증원 전력이다. 이는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고시간을 주는가에 따르겠지만, 매우 단기간내에 동원이 가능할 것이다.

두번째는 예비군이나 향토군으로 향토의용군이나 소집의무가 있는 정식 예비군들로 구

성된다. 이 부대는 평시에는 기간요원들로만 조직되어 있으며, 배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참모총장들의 회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한가지 문제는 유럽중심 활동이다. 현 단계로서 이는 그들의 영역 밖으로, 유럽만의 독자적인 전력이 나토내에 있어야 할 것인지, 있어야 한다면 어떤 형태를 갖출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인 결정이 먼저 내려져야 한다.

그러나 대강의 윤곽은 서유럽연합(WEU) 사무총장인 Willem van Eekelen씨가 제출한 제안에서 이미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그는 일부 지휘계통의 사령관이나 참모뿐 아니라 나토나 WEU고위관리들의 '검직'을 부각시키고 있다.

van Eekelen씨는 유럽연합군 총사령관을 미국이 계속 맡아야 한다고 믿고 있기는 하지만, 중부, 북부, 남부유럽연합군의 사령관은 모두 유럽쪽에서 맡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현재 남부총사령관은 미국 장군이다).

또한 유럽의 전력은 순수한 유럽의 작전을 위해서만 운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렇게 되면 유럽사령관 휘하의 나토 신속대응군은 별다른 노력이나 마찰없이 WEU의 통제하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煥)

(Miltech 91/5)

一笑一少一怒一老

不在, 풍요 그리고 독재

「왜 생선이 부족한가?」

폴란드의 한 컴퓨터가 질문을 받았다.

『삐삐. 질문에 대답할수 없음. '생선'이란 말을 모름...』

똑같은 질문을 미국의 컴퓨터에 했다.

『대답할수 없음. '부족'이란 말을 모름...』

마지막으로 소련의 컴퓨터에 같은 질문이 입력됐다.

『대답할수 없음. '왜'라는 말을 모름』